

**임신고혈압-당뇨, 출산후 재발 위험...
미국 피츠버그대학 트레버 오차드 박사**

임신 고혈압, 자간전증(子癇前症), 당뇨를 겪었던 여성은 출산후 고혈압과 당뇨증상이 다시 나타나 심혈관질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미국의 의학뉴스 전문통신인 헬스 데이 뉴스가 16일 보도했다.

미국 피츠버그대학의 트레버 오차드 박사는 지난주 뉴올리언스에서 열린 미국당뇨병학회 제 63차 학술회의에서 이같은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오차드 박사는 임신 고혈압이나 당뇨는 빠르면 출산 2년후 증세가 재발할 위험이 높다는 사실이 출산 여성 124명을 출산 후 1~3년 지켜본 결과 밝혀졌다고 말했다.

조사대상 여성 중 36명은 임신 중 자간전증, 33명은 임신 고혈압, 24명은 임신당뇨를 겪었고 나머지 31명은 임신 중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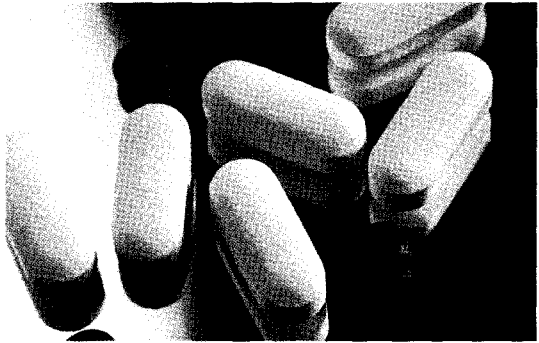
임신 중 자간전증이나 임신당뇨를 겪었던 여성은 출산 후 1~3년 사이에 당뇨병 예고신호인 고혈당과 인슐린 내성이 나타날 위험이 정상여성에 비해 4~6배나 높게 나타났다.

이들은 또 출산후 고혈압을 겪을 위험도 비교 그룹에 비해 12.5% 높았다.

자간전증이나 임신 고혈압이 있었던 여성은 출산후 고혈압이 다시 나타날 위험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25% 높았다.

이는 임신 고혈압, 임신당뇨, 자간전증을 출산 후 심장병 위험이 높아지는 예고신호로 보아야 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런 여성들은 출산후 금주, 금연, 운동, 채식 등 심장병을 막기 위한 생활습관의 변화를 시도해야 할 것이라고 오차드 박사는 말했다.

**당뇨병 확산에 항당뇨제 개발도 활기개발
'현재진행형' 후보약물 8년 동안 3배 급증**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현재 1억7,700만명에 달하는 전 세계 당뇨병 환자수가 오는 2030년에 이르면 3억7,000만명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미국 질병관리센터(CDC)는 지난 2000년 출생한 미국인들의 경우 3명 중 1명이 장차 당뇨병에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당뇨병이 마치 전염병을 방불케 하는 수준으로 전 세계에 확산됨에 따라 당뇨병 치료제를 개발하려는 노력도 갈수록 활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국 런던에 소재한 제약시장 연구조사기관 파마프로젝트는 16일 공개한 통계자료에서 "개발이 한창 현재진행형으로 진전되고 있는 당뇨병 치료제의 숫자가 지난 1995년 당시 93개에 불과했던 것이 지금은 272개로 3배나 급증했다"고 밝혔다. 파마프로젝트는 또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아직 임상시험에 돌입하지 못한 단계이지만, 현재 임상이 진행되고 있는 후보약물들의 숫자만도 임상 2상이 54개, 임상 3상이 12개에 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넥타 테라퓨틱스는 16일 미국 루이지애나 뉴올리언스에서 열린 미국당뇨병협회

(ADA) 연례 학술회의에서 “흡입식 인슐린 제품인 ‘엑슈베라’(Exubera)가 기존에 가장 빈번히 사용되고 있는 항당뇨제에 비해 혈당치 조절효과가 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엑슈베라’는 넥타 테라퓨틱스가 화이자사·아벤티스와 손잡고 개발 중인 약물로 원래 지난해 FDA에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었으나 폐기능에 위해를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서류 제출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이다.

영국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 소재한 컨설팅 그룹 우드 맥켄지의 애널리스트 레인 클라크는 “많은 환자들이 주사제를 꺼리는 관계로 인슐린요법을 받지 않고 있음을 감안할 때 ‘엑슈베라’가 제2형 당뇨병 치료제 시장에 돌풍을 몰고 올 소지가 다분하다”고 예측했다.

미국의 바이오벤처 애리다임 코퍼레이션이 덴마크 노보노디스크와 제휴로 개발 중인 흡입식 인슐린도 임상 3상이 진행 중이며, 일라이 릴리와 앨커미스가 함께 개발 중인 또 다른 약물로 임상 2상에 있는 상태여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애밀린 파마슈티컬스와 일라이 릴리는 지난주 “도마뱀에서 추출한 독액이 혈당치를 떨어뜨리는데 효과를 보였다”고 발표했다.

한편 의사들은 건강하지 못한 식생활로 인해 당뇨병이 날로 확산됨에 따라 스타틴계 콜레스테롤 저하제 등 다른 약물들의 수요까지 동반상승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당뇨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노력은 제약 업계에서 더욱 활발해진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

(사)한국당뇨협회에서 전해주는

「당뇨병」의 발병에서 치료까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사단법인 한국당뇨협회에서는 ‘국가권력
만성 질환’으로 당뇨병을 정해 당뇨병의 조기 발견과 올바른 관리
및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 정책에 따라 지난 1998년부터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지원받아 당뇨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하게 된 「당뇨병」은 당뇨병 발병에서 치료 및 예방까지를 총망라해 당뇨병의 당
뇨병관리를 위해 알차게 준비되어졌습니다.

더 이상 당뇨병은 불치의 병이 아닙니다. 얼마나 관리하느냐에 따라
건강한 사람 못지않게 건강한 여생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뇨관리 지침서인 「당뇨병」과 함께 하세요.

「당뇨병」

「월간당뇨」·「당뇨소식」